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全球化與韓國的應對)

박창근 지음

백산자료원

◇ 지은이 ◇

박창근

길림공업대학 졸업

북단대학 대학원 졸업

독자적 시스템학 체계 수립

한국학 연구

북단대학 한국연구센터 발기인

현재 북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센터 교수

논문 시스템과학 및 한국학 연구에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약 100편의 논문 발표

주요저서 『系統學基礎』, 中國, 四川教育出版社, 1994年.

『系統學』(한국어), 한국, 범양사출판부, 1997年.

『韓國産業政策』, 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8年.

◇ 作者 ◇

朴昌根

吉林工业大学卒業

復旦大學研究生畢業

系統學體系的構建者

韓國學研究者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發起人

現在: 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韓國研究中心教授

論文: 在系統科學與韓國學研究領域用中、韓、英、日文發表約 100篇論文

主要著作: 『系統學基礎』, 中國, 四川教育出版社, 1994年.

『系統學』(韓文), 韓國, 泛洋社出版部, 1997年.

『韓國産業政策』, 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8年.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全球化與韓國的應對)

2003년 7월 25일 인쇄

2003년 7월 30일 발행

저 자 : 박창근

발행인 : 유낙현

발행처 : 도서출판 백산자료원

☎100-193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34-1

TEL : 02-2268-8668 FAX : 02-2267-7710

홈페이지 ☞ <http://www.paeksan.com>

E-mail ☞ pss1966@kornet.net

등록 1991년 2월 11일 제 2-1125호

• 파본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값 21,000원

ISBN 89-88435-48-6 03300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全球化與韓國的應對)

박창근 지음

백산자료원

原书空白页

지은이의 말

작년은 중한수교 10주년이다. 중한관계의 발전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룩한 획기적 성과는 수교 당시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수천 년의 유구한 교류사를 자랑하는 중한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중한 양국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작년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설립 10주년이기도 하다.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설립은 중한수교 전부터 추진되어 중한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10월에 결실을 거두었다. 그때로부터 이 연구센터는 중국에 설립된 많은 한국연구기관 중의 하나로서 중국의 한국학 연구에 나름대로의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나 개인에 대해서도 학문연구의 대상이 시스템학으로부터 한국학으로 전환된지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셈이다. 중국에서는 1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이 1976년에 끝나고 1978년부터 대학원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해에 복단대학 대학원에 입학해서부터 줄곧 시스템과학과 시스템철학 등을 학습·연구해 왔던 나에게 있어서 이는 큰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시스템연구 분야의 많은 친구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한국학 연구에 뛰어들어 이래 어언간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갔다.

10년이란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특수성도 안 갖는 기간이지만 인간은 보통 10년, 100년, 1000년 등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나도 무슨 영문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고 싶고 지난 10년 간에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한번 총괄해 보고 싶어 지난 10년 간 발표한 글들을 모아 이 논문집을 만들어 본 것이다.

1. 시스템학에서 한국학으로

한 인간의 일생은 수많은 우연적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출생도 우연적인 것이고 성장의 길도 우연적인 것이고 성공과 실패도 우연적인 것이다. 물론 성공적인 삶에는 노력이 없어서도 안 되고 기회가 없어서도 안 되고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개개의 사건은 모두 우연적인 사건으로서 각 개인들과 우연적으로 “연분”을 맺는다. 그래서 인간은 저도 모르게 특정한 가정에서 태어나 특정한 방식으로 자라고 특정한 일을 하게 되고 특정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 동감하게 되겠지만 우연성에 의한 모종의 순간적 결정이 인생의 길을 결정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도 카오스를 해석할 때 흔히 말하는 “나비효과”에 의한 것이 아닐까.

1991-1992년 당시, 나는 자기의 지난 10여 년간의 시스템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시스템학기초』란 책을 집필하고 있었다. 국내외 시스템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시스템과학의 기초이론으로서의 “시스템학”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당시 시스템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확립시킨 체계적 저서는 아직 한 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시스템학기초』의 집필은 나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10여 년 간의 누적이 있었기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자기의 시스템학 체계를 만들어 설명할 수 있겠다는 신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중국에서 출판한 『시스템학기초』(중국어로는 『系統學基礎』, 1994년 출판), 한국어로 출판한 『시스템학』(한국 범양사 출판부, 1997년), 또는 1990년 영어로 발표한 “Major Systems Theories throughout the World”(Chang-Gen Bahg, *Behavioral Science,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35:2, April 1990, 79-107)란 글을 보면 내가 만든 시스템학 체계의 독자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시스템학기초』란 책을 쓰면서 잠깐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이 책을 다 쓴 후 뭘 연구할까 하는 문제를 고려하기도 했다. 물론 시스템과학 분야에서 나는 이미 연구계획을 짜 놓고 있었다. 그런데 1989년 말부터 한국 두산그룹 연강재단에서 보내주는 한국 책들을 받아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하여 “한강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고 한국은 향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깊은 호기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시스템학에서 보면 이는 시스템진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시스템학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한 단락 짓고서 일단 현실적인 구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학적 연구를 해보려는 데로 생각을 돌리게 되었다. 즉 한국을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 즉 복잡계로 설정하고 그의 존재와 진화, 특히 경제성장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한국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은사이신 리지중(李繼宗) 전 복단대학 철학과 학과장 등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았다. 결국 나의 모교인 복단대학에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되어 1992년 4월 복단대학 총장한테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제의를 하였다. 5월에 당시 복단대학 외사판공실 주임으로 있던 루이민(盧義民) 교수의 사회 하에 명상성(孟祥生) 전 외사판공실 부주임, 리지중 교수 등이 참가한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지금도 매우 고답게 생각되는 일이다. 회의에서 나는 세계화의 추이, 동북아의 향후 발전, 한강 기적, 중한관계의 중요성 등 측면에서 한국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복단대학에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나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였고, 루이민 교수는 자기들이 지지하겠으므로 내가 복단대학으로 이직하여 한국연구센터의 설립을 책임지고 추진하기를 희망하였다. 밤낮으로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한국의 관련 기관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당시 한국연구센터의

6 지은이의 말

소속 문제가 제기되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복단대학 역사학과 학과장으로 있던 황메이전(黃美珍) 교수가 관심을 보이어 한국연구센터의 운영권을 당분간 당시 역사학과가 소속되어 있던 문박학원(文博學院)에 가소속시키기로 하였다. 물론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는 설립 초기에도 그 운영권이 사실상 역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그 후 학교의 구조조정에 의해 문박학원이 해체되면서 거의 완전히 역사학과에 소속되고 말았다.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초창기에 나는 이 연구센터의 발기인으로서 한국연구의 주 방향은 현실문제에 대한 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메이전 교수도 이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센터의 운영권이 역사학과에 소속되고 황메이전 교수가 한국연구센터 초대 주임직을 그만두면서 현실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야 한다는 원래의 원칙은 관철되어 나가지가 힘들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연구가 중국에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문제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00년 말 복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이 설립되고 한국연구센터가 미국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등과 함께 이 연구원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연구방향이 역사 위주에서 현실 위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향전환이 하도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기에 나는 그저 답답한 심경으로 사태의 변화를 보고 있었지만 “사필귀정”이란 말의 뜻이 새삼스럽게 느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동안 나에게 여러 모로 도움을 준 화중이(華中一) 전 복단대 총장, 스웨첸(施岳群) 전 복단대 부총장, 그리고 니스슁(倪世雄) 현 복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에게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게 된다.

지난 10년 간의 한국연구 과정에서 내가 겪은 시련은 결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학문적으로 보면, 비록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한 책도 좀 읽었고 주변의 조선족 사회에서 민족 전통문화의 세례도 받았다고는 하지만 한국연구에 필요한 지식 축적은

아직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관련된 책들을 대량 읽지 않을 수 없었고 되도록 많은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연구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연강재단 및 한국 서강대 김한규 교수 등 여러 친구들이 보내 준 책들이 크게 도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한국학의 연구대상이겠지만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한, 한국연구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학술연구 성과로서 학술회의에서 발표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상 많은 한국학 연구자들이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한국어를 모르는 많은 한국학 연구자들에게는 그 곤란이 더욱 막심했을 것이다. 초등수학을 배우지 않고서는 고등수학을 배워 낼 수 없는 것처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기본지식이 결여하다면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학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문제를 연구한다는 것도 나에게서는 큰 부담이었다. 학문적 성과가 역사학과 내에서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였고 학문적 교류나 인적 교류도 대단히 불편하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산업정책』(1996년말 완성, 1998년 출판)의 출판비를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전혀 배당되지 않으므로 하여 저서 출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학술회의 참가를 위한 국내출장도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얼마 안되는 봉급으로 한국학 연구를 견지해 왔던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한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한국 학자들이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과 만나서 교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오해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그 동안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를 떠나라는 선의의 충고를 받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떠

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가소로운 일이지만 심지어 한국연구센터를 떠나라는 “축객령”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버티고 있었다. 나는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의 설립을 창안할 때부터 후반생은 주로 한국학 연구를 하리라고 마음 먹었다. 그 때부터 한국학 연구는 나에게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리고 복단대학 한국연구센터는 비록 나 혼자서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처음 창안한 것이었고 이를 위해 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불유쾌한 일과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하지만 이 연구센터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된 것이 나의 처지였다. 재작년에 열린 중국내 시스템 관련 학술회의에서 일부 원로 학자들이 내가 시스템연구에 계속 종사하기를 바란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해 오기도 하였지만 나는 이제 한국연구 영역을 떠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하는 “축객령”, 그리고 “불이익”이 주로 나의 전공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한국인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내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기 때문인가는 데에 대해 말한다면, 이는 객관적 결과에 의한 판단과 주관적 목적에 대한 판단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렇다고 속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법관이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학자도 사실을 중요시한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한다면 그 주 원인은 대체로 중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부정부패”에 의한 피해라고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학계에는 사회상의 일반적 “부정부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학술부패”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른바 “학술부패”는 중국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계에 적지않게 존재하는 작품 표절, 직급승진 비리, 연구프로젝트심사 비리, 학술성과평가 비리, 소득분배 비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 쓰레기 논문·문집·저서의 양산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는 “학술부패”로 간주된다. 나는 지난 10년간 “부정부패”, “학술부패”란 도대체 무엇

인가를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다수 지식인들도 이러한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싸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되는 것이다. 학자로서 부정부패와의 싸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큰 결심을 내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런 소인배들과의 싸움에 나의 보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런 인간들을 상대로 싸우는 자체가 나의 인격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학문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결국 각종 부정부패나 소인배들의 탐욕과 착간에 대한 “불협조”가 주 원인이 되어 각종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학문 연구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나는 거의 천생적으로 사회의 부정부패나 소인배들의 비리에 혐오감을 느끼고 반발심을 갖는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자가 어찌 자기 개인의 이러저러한 불이익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힐 수 있겠는가. 자기의 인격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 명예·재화·권세를 탐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유혹이나 위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명예·재화·권세를 도외시하는 사람에게 어찌 그것들이 진리와 자유와 인격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겠는가. 고대 중국의 위대한 철인 노자(老子)도 “朴虽小，而天下弗敢臣”이라 하지 않았던가.

내가 중국 사회에서 늘 “문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닌가고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면 나는 1966년 3월 고등학교 3학년 시절만 18세의 나이에 중국공산주의청년단 길림성 제6차 대표대회의 대표로 선정되었고 54명의 대회발언자 중 유일한 학생 대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격언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은 것, 그리고 “모택동사상도 이분법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용서 못할 죄로 간주되어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시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여기서 부언하건대 마르크스의 좌우명이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삼척동자의 말이라도 도리가 있다면 받아들이려 하지만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자기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권세자”들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저주한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특히는 사상의 자유이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째 요인이다. 또한 사상의 자유는 학문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요인인 것이다.

2. 본 논문집 내용에 대한 약간의 설명

본 논문집에 수록된 글은 주로 지난 10년 간 발표한 것이다. 물론 그 전부는 아니다. 그중 대다수는 이미 간행물에 발표된 것이고 일부는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원래는 한국산업정책 연구를 마치고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지만 연구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제는 연구비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과제는 한국에 가서 기업문화의 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쉽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산업정책에 대한 과제를 마친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에 끌려 한국학의 여러 분야를 이리저리 섭렵하게 되었다. 한국학의 여러 분야에서 글을 쓰다 보니 너무나도 피곤할 때가 많았다. 별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간 허송세월 하지는 않았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그럼 아래에 이 논문집에 실린 글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기로 하자.

‘서론: 세계화 시대’

자기의 글을 모아 논문집을 펴내는 시점에서 원래는 서론을 통해 한국학에 관한 자기의 소견 등을 피력할까고 생각하다가 세계화에 대한 2편의 글을 서론으로 삼게 되었다. 그 원인은 한국학 연구가 우수한 성과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세계화적 시각에서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전 세계의 미국화라고 평가하는 미국인이나 기타 국가의 학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미국인들을 세계 지배의 꿈으로 인해 자멸의 함정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세계화 시대의 낙오자로 되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대의 격사적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세계 각국은 자기의 방식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겠지만 세계화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삼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세계화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인류를 위한 세계화, 즉 전 세계를 위한 세계화, 이것이 바로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화이다.

보통 경제의 세계화만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현 시대의 세계화는 경제의 세계화만은 아니다. 국제무역의 발전, 교통수단의 진보, 통신수단의 발달, 환경오염의 파급, 인구유동의 가속화 등은 모두 세계화의 내용인 동시에 세계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화란 요약해 말하면 전 지구의 시스템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전 지구상의 모든 사회가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계화라고 본다.

세계화의 핵심적 내용은 경제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관건은 정보의 세계화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류는 참담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2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의 과당 입력에 의한 압력의 증대이다. 정보의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시스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해 각 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을

훨씬 초과한 대량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이 처리 가능한 정보량의 인터넷 등 정보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량에 대한 비율은 날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비대칭성의 확대이다. 따라서 어떻게 정보의 과당 입력에 의한 압력에서 벗어나서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가 인류에게 제기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란 동일한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각종 불량 정보(바이러스 정보, 각종 비도덕적 정보, 정치적 루머 등)의 무분별한 확산이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게 생길 피해자들을 이러한 불량 정보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인류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숙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시스템학'

이 부분에 수록된 글들은 시스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복단대학 한국연국센터에 이직해 온 후, 나는 한국학 연구에 몰두하느라고 시스템학에 대한 이론 연구는 별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스템과학계는 여전히 나의 시스템학 연구성과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내가 1998년에 쓴 "시스템학 연구에서의 몇 가지 기본 문제에 대한 반성"은 여러 간행물에 전재되기도 하였고, 중국 시스템과학계의 원로 학자 쉬궈즈(許國志), 구지파(顧基珩), 차홍안(車弘安) 등이 편찬한 『시스템과학』(『系統科學』, 2000년)에서는 중국학자들의 시스템과학 기초이론 연구성과를 소개할 때 나의 『시스템학기초』를 제일 첫자리에 놓기도 했다. 특히 내가 쓴 『시스템학』이란 책이 한국에서 출판된 것은 특수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한국 학자들이 나의 이 책에 어느 정도 관심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일부러 찾아온 일부 한국인 학자들을 통해 알 수

가 있었다. 한국 방문시에도 여러 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한국의 학자 및 학생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물론 시스템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직 결론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나는 시스템학이란 학문이 성립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이론과 방법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인지과학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유용하리라고 믿고 있다. 내가 시스템학 이론과 방법으로 한국학 연구를 시도한 것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학의 여러 문제를 토론하는 글에서 되도록 시스템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학에 대한 이론적 준비가 결여된 독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시스템학 전문 용어의 과다사용은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학적 틀에 한국의 사례를 깎아 맞춰 넣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학 이론이 제공한 사고방식과 접근 방법이지 전문 용어나 고정적 틀이 아니다.

그리고 시스템학 이론과 방법이 옳다고 하여도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학 연구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한국학 연구에서의 잘잘못이 반드시 시스템학 이론과 방법의 잘잘못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활동 자체가 그 시스템의 복잡성에 못지 않은 복잡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학이 일종의 학과 초월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스템학으로 다른 학문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 '한국 경제'

이 부분에 수록된 것은 한국경제의 도약과 발전에 관한 글들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한국산업정책』에서 진행되었다. 이 책에서 나는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

퍼보면서 한국정부의 산업정책을 한국경제 도약의 관건적 요인으로 확인하고 한국 산업정책의 역사,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경험과 교훈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이 연구를 진행할 때 한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정부관리들을 30명 정도 만나 보았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한국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셨던 김정염 선생도 나의 인터뷰에 응하시어 하루 오전이란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그런데 많은 중국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 학계의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별로 깊지 않은 것 같았다. 아마도 내가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던 기간인 1994-1995년 당시, 한국경제는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으로 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되도록 줄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에 대한 산업정책의 막대한 역할에 비해 보면 한국 학계의 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박약하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 물론 이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당시 산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던 이경태 박사의 저서 『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이 나의 한국 산업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 놓고 싶다.

여기에 수록된 글 중에는 내가 한국 산업정책 연구과제를 완성한 후에 쓴 글도 몇 편 들어 있다. 1997년 말의 금융위기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는 한보철강회사의 파산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서 특기하고 싶은 하나의 사항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후, 김대중 경제철학은 나의 관심을 끈 또 하나의 이슈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도 대단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란 글이 발표된 후 여러 논문집에 전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회의에서 발표해 달라는 초청도 여러 번 받았다. 2002년 8월 전후 한국은행의 초청으로 한국은행에 가서 40일간 연구를 할 수 있었기에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이란 글을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다행이었다.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발전에 대해 관심을 보인 글도 3편 수록되어 있다.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지켜보노라니 마르크스의 아래와 같은 말이 생각나기도 했다. “한 국가는 마땅히 다른 국가들을 따라 배워야 하며 또한 따라 배울 수도 있다. 한 사회는 그 자체의 자연적 운동법칙을 탐색해 냈다고 하여도(……) 여전히 자연적 발전단계들 뛰어넘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으로 취소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해산할 때의 고통은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것이다.”(『자본론』제1권, 중국어판, 1975년, 제11쪽) 한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게 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여 왔던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20여 년간의 사실은 마르크스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역사적 발전단계는 제멋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어제의 한국에서 보았다. 아마도 오늘의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내일의 중국에서 볼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을 단축하고 경감할 것인가? 한국 등 국가들이 정치 민주화와 경제 시장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인간의 치명적 약점 중의 하나는 역사를 쉽게 망각하는 것이다. “역사 전 망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인간들은 불가역적으로 역사를 창조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 원인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무시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무지로 인한 무시일 수도 있고 사리사욕으로 인한 무시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역사에 대한 조롱은 역사에 의한 조롱으로 끝장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중국에서 재현되지 말기를 바